

# 축사

박 관 용

(전 국회의장, 대한민국)

1. 소개 - 후원 측에 대한 감사의 인사
2. 지역 내의 NEAEF 의 역할
3. 한국-러시아간의 경제 협력
4. 포럼의 성공과 지역의 번영에 대한 바람
5. Young Leaders Program 에 대한 최고의 바람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단의 대표로서 아름다운 도시, 하바로프스크로 초대해주신 하바로프스크주 빅터 이샤예프 주지사님과 동북아경제포럼 조이제 의장님에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하바로프스크 주의회 유리 오노프리엔코 의장님, 조지 아리요시 전하와이 주지사님, 왕슈주 중국 천진 시장님, 모두 제 15 차 동북아경제포럼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제 15 차 동북아경제포럼이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리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제일 동쪽으로

멀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지역까지 커다란 지역간 경제 협력을 이룰 수 있으며, 동북아 지역간 경제 협력을 통하여 각국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 15 차 동북아경제포럼은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교통, 금융, 그리고 관광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교통, 금융, 그리고 관광이라는 각각의 주제는 동북아 지역의 미래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에 매우 중대합니다. 동북아의 지역과 지역이 밀접하게 교류한다면 동북아 경제는 지속적으로 번영할 것이며, 오늘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도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동북아 각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동북아 지역간 경제 협력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대표로서 한국의 동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 하바로프스크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방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에 하바로프스크에서의 동북아경제포럼 회의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의 수교 이후 지난 15년간 한국과 러시아간의 협력은 건설, 무역 그리고 지역개발의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경제 협력의 기회와 영역이 존재함에도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저는 제 15차 동북아경제포럼 본 회의가 진행되는 이틀간 그러한 분야들이 논의되고 이를 통하여 한국과 러시아간의 경제교역이 증대되길 희망합니다.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가속화는 세계화와 각 지역의 경제성장 그리고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가치관을 공유하여, 동북아시아의 경제 협력과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또한 이번 회의에는 동북아경제포럼의 동북아 젊은 인재 육성 프로그램(Young Leaders Program)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시어 동북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커다란 기회를 얻은 참가자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조직하신  
조이제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젊은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참가자 분들 모두가 하바로프스크에서 함께  
지냈던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시어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 15 차 동북아경제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며, 회의를  
준비해주신 하바로프스크 주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